

##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사회운동의 과제 : 우크라이나 좌파의 관점에서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10일(토) 오후 4시 강북근로자복지관 5층 대강당

강연자 | 블라디슬라프 스타로두브체프 우크라이나 '사회운동'(SR) 활동가

사회자 | 김진영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강연**

**강연자** | 저는 우크라이나의 좌파단체 '사회운동'(SR)의 회원입니다. 우리는 반자본주의적이고 사회적인 우크라이나, 모든 민중이 존중받는 세계라는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중부유럽, 동유럽을 연구하는 역사학도이며, 노동조합과 사회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외채 탕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로운 질문들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주류 언론이나 일반적인 토론이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1. 왜 국제 좌파가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까요?**



# 1.1.

## 국제연대, 그리고 강대국의 지배가 아닌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 건설



### 1.1. 국제연대, 그리고 강대국의 지배가 아닌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 건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끔찍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수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점령당한 영토에서는 고문실, 강제수용소, 살해되어 단체로 매장된 민간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키이우, 오데사, 리비우와 같이 전선으로부터 떨어진 후방도시들도 매주 로켓 폭격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민간기반시설, 에너지와 물 공급시설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좌파들은 몇몇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상대 중 하나에 맞서서요.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인의 바람과 이를 억압하려 하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러시아 매체의 이야기와 달리,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최근 나토의 확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 야심이 원인입니다.

# 1.2.

## 새롭게 등장한 권위주의 국가들 간 동맹 & 투쟁의 상호연결



### 1.2. 새롭게 등장한 권위주의 국가들 간 동맹 & 투쟁의 상호연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권위주의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오직 권위주의 국가들의 상호의존적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이 권위주의 동맹에는, 북한, 미얀마,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 밖에도 주로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통치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제 드론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투쟁이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승리는 다른 나라 민중들의 투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란은 드론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무기를 사는 자들은 자국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무기를 삽니다.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에 맞서는 모든 싸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승리는 세계의 극우 세력과 권위주의 정권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르펜,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당(AfD), 또는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극우 정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소말리아, 인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도 푸틴에 의존합니다. 러시아가 승리

하면, 민주주의에 기초한 세계는 힘과 군사력에 기초한 세계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침공이 성공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양보를 얻어낸다면, 그것은 어느 국가든 비슷한 전쟁을 시작하여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국제 분쟁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사화도 심화할 것입니다. 세계가 러시아의 핵협박에 귀 기울여 이 협박이 성공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만들 동기를 얻겠지요. 전 세계의 불안은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악과 현상 유지 사이의 투쟁입니다. 좌파나 진보 세력이 현재 세계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임은 명확합니다.

# 1.3.



**제국주의, 점령, 테러,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좌파의 의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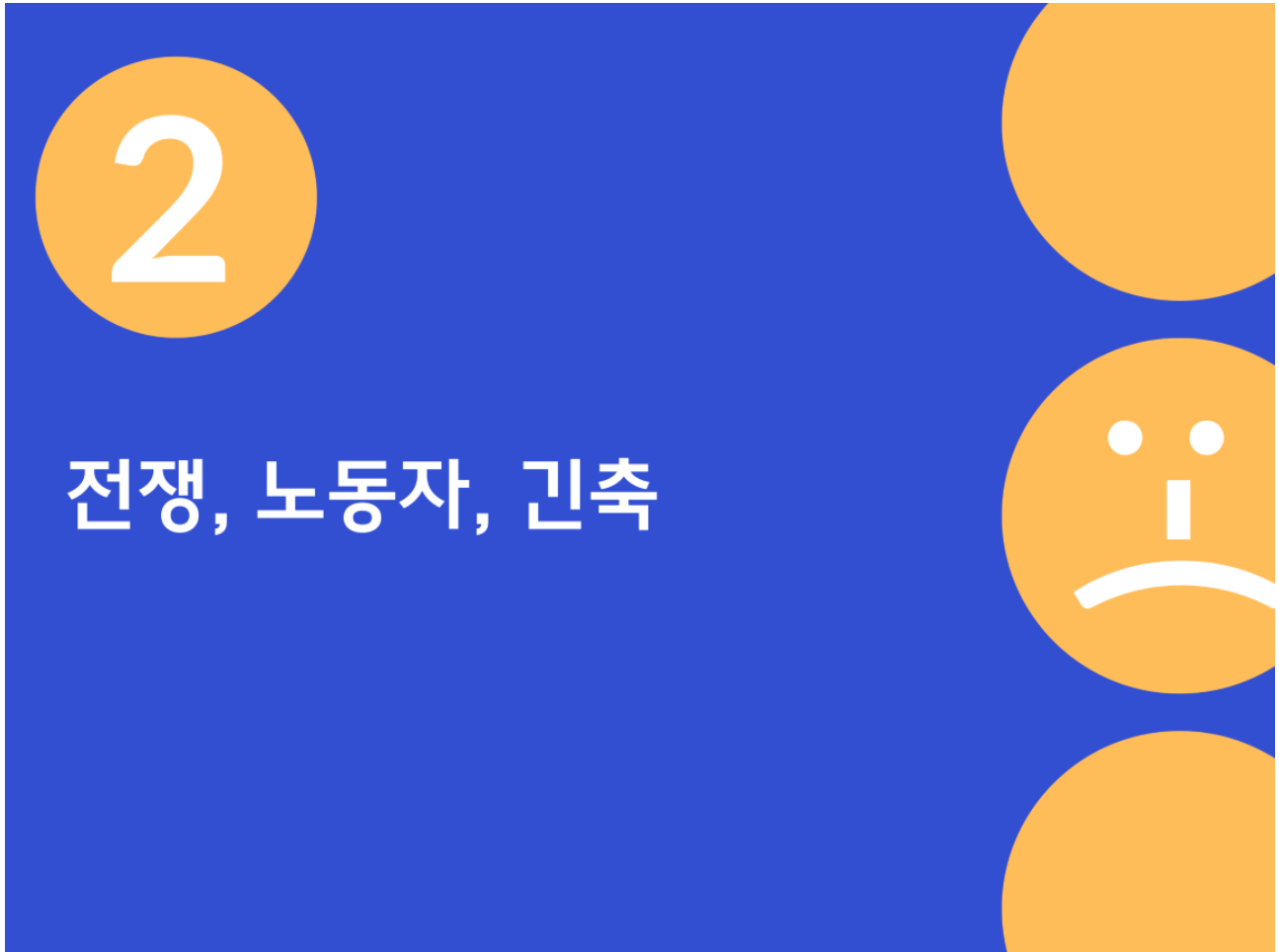


## **1.3. 제국주의, 점령, 테러,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좌파의 의제**

제국주의, 점령, 테러,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좌파의 의제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에 지지를 표하는 시리아 혁명의 모습입니다. 왼쪽 밑은 알제리 혁명 당시 사진이고, 오른쪽은 얼마 전 헤르손 시가 해방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민족자결과 자유를 위한 전 민중적 투쟁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들과 좌파가 이 투쟁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민중의 투쟁과 열망을 지정

학적 이해로 대체한다면, 좌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중의 해방이라는 과제를 지켜 가는 것이 좌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 2. 전쟁, 노동자, 긴축



다음은 전쟁과 노동자, 긴축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전을 치르는 동안, 신자유주의 정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는 실용적이라기보다 이념적 측면의 정책입니다. 레이건주의, 대처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정부는 전 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사실 전쟁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지만, 전쟁 발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을 좋은 계기로 인식하여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면, 기업들이 강력한 경제를 만들고 투자를 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 기초한 정책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바보 같은 정책들입니다.

## 2.1.

# 반사회적 법률

노동감독에 대한 전시 계엄 법안들:

5371호 - 노동권 보장에 대한 규제 완화

5161호 - '0시간 계약' 도입

2352호 - 동원 노동에 대한 임금 보장 없음

노동조합 자산에 대한 국유화



### 2.1. 반사회적 법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권 보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5371호 법안이 있고, 모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노사정 3자간 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사 간 관계를 조율할 때에는 국가의 규율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자가 고용주와 집단적이 아닌, 1:1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제 아무 제약 없이 초과노동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노동법에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를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도 훨씬 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실업률이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두고 14명이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을 뜻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붕괴가 함께, 임금에 심각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과 국민 대다수를 돕는 대신, 우리 정부는 기업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기업들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불균형하고, 돈을 가진 이들에게 편향되어 있

습니다. 임금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최근 5161호 법안으로 '0시간 계약'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일정한 양 이상의 노동을 보장할 의무를 없앤 것입니다. 이 새 법에 따르면, 고용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상도 훨씬 적어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된 상태에서도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일자리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 이전에는, 고용주가 노동량을 보장하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시킬 일이 없을 때에도요. 이제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노동을 보장하지 않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2호 법안입니다. 이 법은 기업이 전시동원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허용합니다. 동원된 이들은 군대에서도 여전히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덜었습니다. 동원된 이들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원은 개인의 판단과 무관하게 이뤄지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전부 동원된 이들의 몫으로 만듭니다. 군대에 보내진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근로계약 상당수는 이 전쟁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법정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 모든 법들에 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의 노동조합은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노조의 자산은 소련의 국유자산이었으나, 소련이 붕괴할 때 노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를 명분으로 이 자산을 되찾으려 합니다. 노조의 자산 소유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조의 자산을 국유화하여 노조를 통제하고, 수동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자산 덕분에 노조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 소유의 주택, 센터, 모임에 쓰이는 여러 건물들 등입니다. 이렇게 노조를 신자유주의 개혁에 충성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재 노조 자산인 요양 시설들을 국유화, 민영화하려 합니다. 정부는 민영화된 요양시설에서도 수용 인구의 20%는 난민과 국내실향민에 할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양시설들이 노조 소유인 현재에는, 수용 인구의 90%가 난민과 국내실향민입니다. 그러니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60% 이상을 쫓아낼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올리가르히를 위해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노동권에 대한, 지난 40년 중에 가장 큰 공격입니다.

전쟁은 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관심이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에 집중되어 있으니깐요. 지금 가장 애국적인 이들은 전선에서 직접 싸우는 노동조합임에도, 정부는 노조에 손해를 강요합니다. 노조에 충분한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 2.2.

# 전시 신자유주의

3663호 - 사회보장 & 연금기금 통합  
규제기관 대폭 삭감  
국가 고용 축소  
세제개혁  
최저 예산  
산업 정책이나 군사산업 정책 부재  
사회적 대화 부재



## 2.2. 전시 신자유주의

하지만 반사회적 정책의 대상은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우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언급된 3663호 법안은 사회보장과 연금기금을 통합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은 여기에 드는 재정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병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다친 사람들에게 대한 보장도 삭감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얻은 트라우마에 대해 보상받을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즉, 이 통합으로 인해 많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사라집니다. 연금기금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연금이 삭감되고,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경제를 규제하는 규제기관들, 즉, 환경 규제 등을 담당하던 기관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모든 규제 감독을 하나로 통합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감독, 환경감독, 수자원 감시, 산림 감시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굉장히 무능하고 능력 없고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맡겨집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경제 전반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 이것은 기업들이 매우 쉽게 반환경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발전소나 공장, 기업에서의 노동 가격을 보호하던 근로감독이 무력화됨을 뜻합니다. 전시인 지금은, 근로감독이 완전히 멈춰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더라도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없고, 고용주가 노동의 안정성, 일터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이제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애국주의 이념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면서, 모든 것이 효율성을 위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정책은 완전히 효율성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구조의 비효율성을 늘려, 매우 약한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전시 상황에서요. 국가의 모든 행정 시설, 국가 계획, 국영기업을 대폭 축소하려고 합니다.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핵발전소와 에너지 산업의 노동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필수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 시설들, 예를 들어, 난민 보호 시설 등을 축소하려 합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의제를 고수하여 매우 적은 예산과 매우 적은 세금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세제개혁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에,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세금 감면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영국에서 제안된 것과 비슷한 세제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역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한 총리가 낸 안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개혁안 때문에 총리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 세 가지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세금을 폐지하는 급진적인 세제개혁안입니다. 기업세 10%, 소득세 10%, 부가가치세 10%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이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한 재정 집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10%는 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지속하기에 틀림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지탱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러한 이념화된 시장근본주의가, 세금 삭감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유시장, 비개입주의, 규제 완화 정책은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안정적인 산업 정책이 없습니다. 엄밀한 산업 정책이 있는 남한, 일본 같은 나라와는 다릅니다. 몇몇 계획위원회는 무엇을 생산할지, 급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조차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이 없습니다. 전쟁 중인 지금, 이는 강력한 군수산업 정책도 없다는 뜻입니다. 군수생산의 대부분은 민간업체와의 민간계약으로 이뤄집니다. 몇몇 국영업체도 운영되고 있지만, 불행히도 전쟁 전에 축소를 겪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수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충분한 양의 군수생산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필요로 하며, 또한 산업 정책, 군수산업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개혁안과 정부 정책 방향은 사회적 대화를 전혀 촉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모든 관심이 점점 더 많이 특권층에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 쏠립니다. 정부는 이것이 경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

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낙수 효과 이론의 틀 안에서 사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효과는 단언컨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제안들을 말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 2.2. 전쟁의 시작과 첫 번째 파업, 시위들

- 도브젠코 영화아카이브&문화센터 민영화 반대 시위
- 부패 경영에 대한 파업
- 대학 통폐합 반대 학생 시위



### 2.2. 전쟁의 시작과 첫 번째 파업, 시위들

이제 파업과 시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지만, 이것은 대중이 시위와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가을, 전쟁 시작 뒤 첫 파업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석탄 산업 광부들이 부패한 경영진에 맞선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을 통해 경영진은 제거되었고, 더 안정적인 경영진이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파업이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고, 전시에도 정부가 파업을 강제진압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리를 위해 싸우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광부 파업은 유일한 시위 사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키이우의 매우 중요한 영화 아카이브이자 문화센터인 도브젠코 센터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크라이나의 유명 감독에서 따온 것입니다. 정부는 이 센터를 민영화하고 아카이브를 철거하여 엘리트들을 위

한 주택 단지를 지으려 했습니다. 영화 아카이브를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은 키이우의 문화계, 중산층과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위는 효과적이며, 정부는 시위대의 여론을 듣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물러났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우크라이나 교육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국가 재정은 안타깝게도 매우 적은데, 정부는 이것을 심지어 더 줄이려 했습니다. 이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학생들은 두 대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저항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공, 학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동맹휴업에 나섰고 현재,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 2.3. 자유민주주의

**전쟁 속 우크라이나는 매우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시위가 계속되고**

**토론이 너르게 이뤄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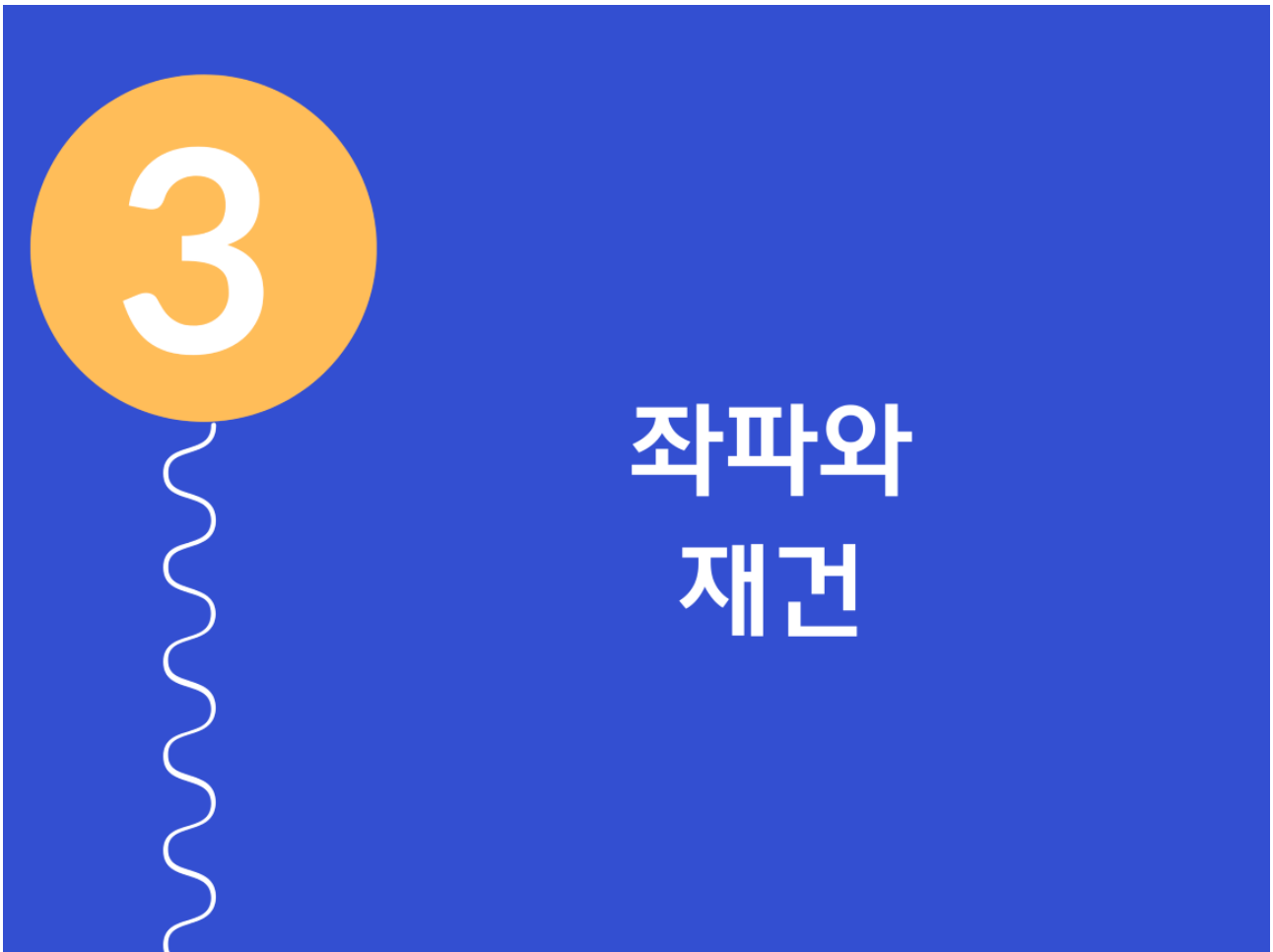
**여론이 반영됩니다**

### **2.3.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비록 결함이 많고 매우 불안정하고 올리가르히에 편향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간에 시민이 여전히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슈에 대한 토론이 SNS에서 이뤄지며, 대중의 여론이 정말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지 않고, 시민의 말을 듣고 싶지 않겠지만, 시민은 정부가 말을 듣도록 견인할 수 있습니다. 왜

냐면, 이 정부는 대중적 인기와 여론조사에 의존합니다. 인기를 잃으면, 정부는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조직하고 저항합니다. 공동체를 조직합니다. 권리를 위해 싸우고,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좌파와 재건



이 모든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굉장히 비실용적, 비현실적인 길입니다. 실용보다는 이념적 측면이 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그 원칙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그 지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로 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부채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그 재건을 돕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군대와 사회적 이슈에 지출해야 할 우크라이나의 예산이 전쟁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외채를 탕감하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 담당자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간 외채 상환 일정을 동결하는 것은 이미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탕감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우크라이나가 외채를 갚아야 한단 뜻입니다. 이 외채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비록 상환 일정이 동결되더라도 이 외채는 훗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좌파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특히 각국 민주당의 진보 진영은 우크라이나는 싸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우크라이나의 외채를 탕감하자고 주장합니다. 화면의 사진에서 '사회운동'(SR)과 폴란드 원내 급진좌파 정당 '라젬'(좌파함께당)의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라젬이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캠페인은 우크라이나가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나 외국 자본의 점령, 민중이 아닌 기업의 이해관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 3.1. 우크라이나의

## 사회적 재건

- 인간 중심적 접근
- 국가 주도의 발전
- 포괄적, 민주적, 분권적, 페미니즘적 재건
- 국가-지역사회 간 협력
- 사회적 지향, 임금
- 노동 주도 경제

### 3.1.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재건

그런데 외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부유한 국가들은 사회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재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재건에는 인간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은 기업들에 돈을 주고, 낙수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집을 잃거나 떠나야 했던 사람들, 불안정한 노동 조건, 실업, 저임금을 견디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재건 캠페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국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건은 기업의 이해나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을 건설하고,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주도의 개발이란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완전히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투자할 유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이 그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진다면, 안정성, 사회 정의, 민중을 위한 복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기간시설, 도로, 공공교통을 건설하

고 모든 파괴를 복구하고, 새로운 기간시설과 사회적 계획에 투자하고, 우크라이나의 산업을 발전시킬 산업 정책을 만들고, 생산 발전과 완전 고용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재건이 국가의 손에만 맡겨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은 시민사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장 큰 부분인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조는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계획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부문의 재건이 우선 순위일지 판단해야 합니다. 노조와의 협력 없이 재건을 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민중의 도움 없이 재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무시하고, 그 밖의 여러 다른 시민 조직을 무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의 99%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건은 모든 지역사회와 국가가 다양한 사회적 방식으로 협력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은 포괄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즉, 사회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무엇이 진정한 재건인지 결정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권적 재건이란 한 지역의 손에 모든 결정이 맡겨지는 대신, 모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분권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날 지에 상관없어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재건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건은 사회적 지향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 4. 마이단 운동과 우크라이나 사회

# 4

## 마이단 운동과 우크라이나 사회

마이단은 구 엘리트들, 러시아화,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선 민주적, 민족해방적 혁명이었습니다.

마이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친유럽적 자유주의 세력이었고, 좌파와 극우파도 참여했습니다.

공산당과 좌파의 잘못을 좌파를 '올리가르히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리인'과 연관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 대중 동원과 대중의 자기조직화

현재 상황에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이단에 대해 좌파 내에서도, 일반적으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이 소위 '색깔혁명'인지, 아니면 '민중혁명'인지에 대해, 그리고 마이단 운동 중 실제 어떤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 많은 억측과 잘못된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단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자세한 맥락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길을 걸어왔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의 주장과 달리, 마이단은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단은 쿠데타 또한 아닙니다. 마이단은 민주적인 대중혁명이었고 수백만 명이 참여하여 야누코비치 정부의 권위주의적 경향에, 지정학적 이해와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 그리고 구 엘리트들에 맞섰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이단이 주로 야누코비치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이단 운동 속에서, 사람들은 엘리트들에 맞섰습니다. 사람들은 올리가르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기반 확충을 원했고, 더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를 원했습니다. 야누코비



치와 엘리트들의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언어를 발전시키길 원했습니다. 마이단 기간 동안, 거리에서 이 모든 요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엘리트와 권위주의에 맞선 것입니다. 러시아화에 맞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럽으로의 통합을 지지한 것은 러시아보다는 유럽연합이 더 민주적이고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마이단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유럽 통합을 원하는 자유주의적 지식인층이었지만, 좌파와 같은 다른 참여자들도 있었고, 우리 단체도 참여했습니다. 많은 무정부주의 민병대도 마이단에 직접 참여하여 반마이단 세력, 경찰과 싸웠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극우파도 물론 마이단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의 구 좌파 세력은 친러시아 정책, 보수주의, 성소수자 혐오, '전통적 가치', 제국주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좌파정당'이라는 '우리 땅' 당은 '독일을 위한 대안', 프랑스의 르펜과 같은 극우 정당과 비슷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은 극도로 성소수자 혐오적, 보수적, 권위주의적, 친러시아적 정당입니다. 불행히도, 당시 그들은 좌파 중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좌파를 상징하다보니, 좌파는 친러시아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탈린주의자는 반마이단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좌파는 이런 큰 좌파 세력과 소위 좌파정당들의 영향 하에 있었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기적으로, 마이단 내 전투적 분파로서 극우 세력이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로부터의 독립과 우크라이나어의 발전을 극우파가 가장 꾸준히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단 당시 극우파에 대한 지지는 그들의 이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식민주의, 반러제국주의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단은 자기조직화된 수많은 공동체가 참여한 대중시위였습니다. 분명히 아래로부터 조직된 독립 경찰 세력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무정부주의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이단에 참가한 민중을 친정부 경찰로부터 지켰습니다. 많은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지키기 위해 자기조직화에 나섰습니다.

# 4.1.

## 혁명적 경험



### 4.1. 혁명적 경험

슬라이드의 사진을 보시면, 경찰로부터 시위대를 지키고 돕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시위대에게 음식, 교통, 난방,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마айдан은 민중의 혁명적인 자기조직화 경험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요.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고, 시위대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붕대가 필요하면 붕대를 가져오고, 발전기가 필요하면 가져오는 식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혀 금전적 대가가 없이 조직되어,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케이드 설치에 참여하여, 시위대를 경찰로부터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айдан은 혁명적 경험이었으며, 평범한 일상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마айдан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 4.2.

# 민족적 격변

### 4.2. 민족적 격변

민족적 맥락에서 마이단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단 이전의 우크라이나에서는, 문학과 서가 대부분이 러시아어 작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말하는 사람은 2등 시민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민족적 맥락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마이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말하고 발전시킬 민족적 권리를 위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단은 민족적 격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장려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러시아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우크라이나 고유의 문화, 전통, 언어를 배우고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단이 민족적 격변의 경험인 것입니다. 만약 마이단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어는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화, 러시아의 선전, 러시아의 자금이 우크라이나 방식 대신 러시아 방식대로 살 것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단이 민족해방의 기회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민족적 맥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극우의 주장

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에서는, 민족 문제에 있어 민족적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마이단 참여자의 의제였습니다.

## 4.3.



# 민주화

### 4.3. 민주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의제가 있습니다. 이는 마이단이 분명 성취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발전시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기조직화 사례와 아래로부터 조직된 경찰들의 합류가 마이단 당시 있었습니다. 구 엘리트에게는 권력을 민중에게 넘기라는 거센 압박이 가해졌고, 우크라이나 사회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민주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셨습니다. 올리가르히 체제의 해체, 민주주의, 공정선거 요구도 있었지만, 사실 전부 올리가르히 정당이므로 투표할 만한 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요구는 마이단이 시작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야누코비치 정권이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마이단을 계기로 많은 민주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쟁이 시작되며 이 모든 게 끝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더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초점이 어떻게 우리 나라를 방어할 것인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근본적인

탈군사화, 비무장화를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가 공격해오자, 모든 민주화 과정이 멈춰버렸고 우크라이나 사회는 어떻게 가족과 시민을 러시아의 점령으로부터 지킬 것인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 4.4.



### 마이단 과정의 역전과 극우의 강화

- 극우파는 더 호전적인 세력으로서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 내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충돌했습니다.
- 극우의 인기는 그들의 친우크라이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입장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이단을 통한 민주화와 민중의 자기통치 경험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멈추었습니다.

#### 4.4. 마이단 과정의 역전과 극우의 강화

우크라이나는 군대와 군산복합체가 부족했고, 마이단 혁명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침공은 마이단의 민주적 시위를 역전시켰고,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군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나라를 효과적으로 지킬, 조직된 정규군 구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침공 초기의 방어는 대부분 민병대가 수행했습니다. 좌파는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당시 우크라이나 좌파는 강한 '평화주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점령을 목적으로 한 전쟁 중임에도, 좌파는 소위 '평화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극우 세력이 조직화하는 거대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극우의 영향력 대부분은 마이단이 아니라 전쟁 때문입니다. 그들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민병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 극우의 부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 5. 2022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좌파와 시민사회의 역할



이제 시민사회의 많은 구성원과 좌파는 전쟁에 직접 참여합니다. 극우파가 민병대를 독점하는 현상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싸우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극우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자, 반제국주의 투사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반제국주의 투사니까요. 지금은 무정부주의자, 성소수자, 소수민족 연대(聯隊)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연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 민중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는 지금은, 2014년에 비해 극우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는 이제 애국주의와 국가 방어를 독점하지 못합니다. 극우는 이제 반제국주의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좌파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좌파에 찍힌 낙인을 지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좌파가 평화주의, 친러시아 정책을 연상시켰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좌파는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는 반제국주의를 연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좌파는 크렘린의 대리인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좌파가 러시아군에 맞서는 연대에 참여하여 싸우는 현실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좌파에 대한 낙인은 많은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좌파를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모든 투쟁에 좌파가 참여한 덕분에, 사람들은 좌파가 자신들을 대표하고, 자신들과 함께 하는 세력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반대되는 세력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좌파 활동가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좌파에 대한 낙인은 사라졌고, 많은 사람이 우리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좌파에 대한 관심을 확대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낙인을 없애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크라이나에는 좌파에 대한 낙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산당이 20년 이상 동안 외국인 혐오 정책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왔으니깐요. 그러나 이제는 좌파가 발전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좌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선에 나가 있는 성소수자 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성소수자 혐오가 강한 포스트 소비에트 사회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성소수자 투사들이 자신들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덜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며 존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 투사들은 이를 더 많은 관용과 인도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매체 플랫폼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5.1.



군대에 참여한

좌파와

노동조합 조합원들



### 5.1. 군대에 참여한 좌파와 노동조합 조합원들

우크라이나 좌파는 전쟁이 시작했을 때부터, 정확히는 전쟁 시작 전부터, 영토 방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들의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는 여러 무정부주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주로 무정부주의자로 구성된 좌파 축구 팬 연대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좀 더 정치적인 무정부주의 그룹인데, 그들만의 연대를 구성하여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며, 무정부주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코-무정부주의, 채식-무정부주의에 기반을 둔 그룹들도 그들의 연대를 구성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노동조합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기도 하고, 전선에 나가 직접 싸우기도 합니다. 노동조합들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동원된 노동자들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군대에 간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연결이고 더 발전할 것입니다. 좌파, 노동조합, 군대에 있는 우리 동지들 간의 많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5.2.



# 인도적 지원

## 5.2. 인도적 지원

이 사진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좌파는 군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싸우는 이들이나 최전선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물과 식량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는 현재, 사회보장은 자원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좌파들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의 '솔리더리티 컬렉티브'는 전선이나 전선 근처에 있는 이들, 가장 많이 파괴된 도시들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무정부주의 단체고, 오른쪽은 우리 단체와 세계의 활동가들이 모인 사진입니다. 이들은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고, 우리의 대의에 좌파로서 연대와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들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인도적 지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을 만들어서 서구와 세계의 좌파들이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저항하고 있으니까요. 노동조합들, 투사들,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 말입니다.

## 5.3.

# 국제 캠페인



### 5.3. 국제 캠페인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제 캠페인은 무척 중요합니다. 활동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좌파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은 대중적으로 좌파에 대한 낙인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은 좌파가 민중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도 한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군대가 스스로 방어를 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기는 주로 국가보다는 자원적 지원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 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더 큰 나라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장비, 폭탄, 무기, 고성능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각국의 무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월에 미국, 영국으로부터 대전차 무기를 지원받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빴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패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국제적 지원을 조직하는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자기조직화와 세계의 관심, 인도적 지원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 5.4.



페미니스트, 퀴어, LGBTQ+ 단체들은 전선과 인도적 지원에 참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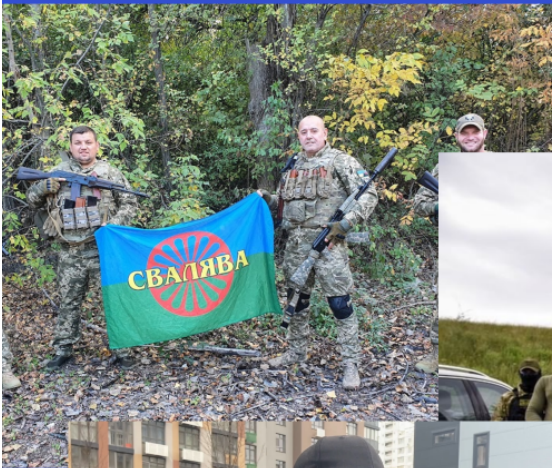
### 5.4. 페미니스트, 퀴어, LGBTQ+ 단체들의 전선과 인도적 지원 참여

성소수자(LGBTQ+) 그룹들은 군대에서 별도의 연대를 형성했는데, 이들이 모두 한 그룹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같은 성소수자 투사의 상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

을 착용함으로써, 군대가 이성애자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성소수자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나라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지금 성소수자 연대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는 이들의 존재감과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군대에서 싸우는 페미니스트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성이 군대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조적 가부장제 때문에 여성들은 몇몇 임무로부터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병사를 지휘하고, 영토방위군에 복무하고, 군대에 복무하면서 전선에서의 모든 활동에 참여합니다. 사진은 전투에 참여하는 성소수자 그룹들의 상징입니다.

## 소수민족들의 군대 참여



성소수자, 좌파, 시민사회, 노동조합, 활동가들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회의 모든 소수민족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우크라이나의 승리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이들은 자결권과 민족적 정체성, 의견을 표현할 권리 등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왼쪽은 롬인(집시) 연대의 사진입니다. 안타깝게도 롬인은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비인간적 대

접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많았습니다. 구조적 인종차별도 있었습니다. 좌파 활동가들은 롬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롬인의 대표성을 높이고 자치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의 문화와 민족적 권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회에 이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함에도, 이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웁니다. 이 싸움은 곧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체첸인 연대입니다. 이들이 싸우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고향, 체첸은 러시아의 두 차례 침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체첸 공화국의 독립을 참혹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첸 출신이거나 체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강력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독립된 체첸인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가운데는 크림반도의 타타르인입니다. 많은 크림 타타르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그곳에서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이들 자신의 땅을 해방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제국주의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우크라이나가 나치 국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치 국가에서는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사진에 보이는 것이 소수민족 연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유태인 연대도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싸우는 러시아인 연대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 5.5.

# 난민, 군대, 그리고 서로를 돕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 조직. 파르티잔.

### 5.5. 난민, 군대, 서로를 돕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대중 조직. 파르티잔.

전쟁 중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한 대중적 조직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통치 공동체를 조직하고, 인도주의 이니셔티브를 조직하고, 국내의 실향민과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에너지, 음식, 옷, 주거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부대를 조직합니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부재로 인해, 현재 사회보장은 민중에게 의해 조직됩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키이우, 리비우로 피난가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키이우도 포위되어 있었지만요. 지역사회는 난민을 돕기 위해 뭉쳤습니다. 난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아니 모든 사람이 난민, 군대, 사람들을 돕는 자기조직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의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거리에서는 순찰대를 조직하여 첩자나 러시아군의 접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 인도적 지원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리들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규모의 대중 동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를 떠난 올리가르히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

니다. 지금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국가나 올리가르히가 아니라, 민중이기 때문입니다. 민중은 조직되어 있고, 서로를 돕고, 난민을 돕고,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단 운동 기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중 동원, 대중 참여의 또 다른 형태인 파르티잔(빨치산)입니다. 점령지에서는 많은 사람이 파르티잔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 요인들과 점령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들을 살해하거나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생포합니다. 도로를 파괴하고 보급을 파괴하며 러시아군에 사보타주를 가합니다. 러시아군의 이동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알려줍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절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르손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헤르손을 해방하고 몇몇 중요한 러시아 정부 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파르티잔과 우크라이나군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후방에서도 대중의 조직화가 있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 질의응답

**김민철** | 저는 교육공무직본부에서 활동하는 김민철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강사 분의 의견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이단 운동을 소개하실 때 유럽이 러시아보다 더 통합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동단체 중에서 젤렌스키 정부의 친미 친나토 정책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들이 있는데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사회운동'이나 강사님의 평가 혹은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연자** | 마이단 운동과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질문하신 것이죠?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행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모든 경제, 사회 정책을 반대하는 반면에, 군사적, 외교적 노력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단이 친미 시위였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단은 친유럽 시위였지만 유럽연합에 의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

아의 침공은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엘리트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이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의 좋은 예시가 벨라루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우크라이나를 종속시키려는 수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복속시키고 다른 독립국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침공의 이유입니다. 사실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민스크협정에 합의하도록 강제했고, 민스크협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기쁘게 협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세영** | 안녕하세요. 사회진보연대 총북모임의 서세영입니다. 김민철 동지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인데, 하나는 마이단 운동을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했지만 좌파도 여기에 함께 해서 제국주의적인 정권에 맞서 더 민주적인 길로 가고자 노력한 것 같은데, 좌파가 자유주의 세력과 완전히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마이단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좌파 세력이 마이단 운동에 결합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개입하고자 했는지, 그 운동을 어떻게 이끌고자 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적 저항은 정당하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 또한 군사적 행위기는 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군사적 저항이 군사주의의 확산과는 다르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강연자** | 네, 마이단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마이단 속에서 좌파가 매우 강력한 반제국주의 입장을 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좌파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파가 마이단에서 사회적 차원의 의제를 촉진하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단은 권위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자결 혁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올리가르히에 맞선 사회 혁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이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마이단이 단지 자유주의적 운동만이 아니라 전 사회의 운동이 되도록요. 마이단은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한 것일뿐만 아니라 더 사회적이고 올리가르히가 없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중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좌파는 조직화에 나서기에 세력이 약했고 소비니즘적인 구 좌파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이단에 사회적 차원을 부여하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탈군사화에 대한 것이죠?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녹색당의 지도자 중 하나인, 제 친구 하위 호킨스의 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미



국 군사 예산의 75%를 삭감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런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쟁의 위협과 안보 문제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군사화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투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좌파가 해야 할 일은 위협받는 국가들의 군사화가 민중의 통제 하에 이뤄지고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위협받는 나라 대부분은 스스로 무장할 경제력이 없습니다. 군비 증강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연구, 개발, 생산에 매우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설령 미국이나 러시아만큼의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대적인 장비를 만들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가 요구해야 할 것은 무기 거래에 제한을 두고, 이윤을 위한 무기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수산업은 국제적 차원에서 소유하거나, 국유화하여 민주 국가의 통제 아래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캠페인은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무기 생산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오로지 방어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세계가 분쟁으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를 공격하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세르비아는 코소보와의 국경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쿠르디스탄을 파괴하기 위해 소위 '특별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동향이, 세계가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안타깝게도 탈군사화가 당장의 의제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좌파가 해야 할 일은, 군사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 그것이 민중의 손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윤을 위하지 않는 방식이 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타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으로서는 탈군사화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큰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미국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혼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러시아만큼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침공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필요한 것은 무기 거래, 생산, 지원을 자본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 하에 두는 것입니다. 탈군사화는 더 안전한 세계에서는 의제가 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서단비**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단비고 이 사회진보연대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감과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 키이우에 게시는 블라디슬라프 씨를 또 언제 볼지 모르겠으니 좀 길어도 두 개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소감 먼저 얘기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 정말 감사하고 큰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이우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러시아가 키이우 주위의 기간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면서 대부분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라디슬라프 씨를 직접 만나게 되어서 감동했다는 점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우크라이나를 떠올릴 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영웅적인 저항도 물론 생각하지만 주로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중심으로 파괴, 죽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 같아요. 미디어에서도 그런 모습을 주로 비추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전쟁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사회와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실 중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러시아에 종속된 미래와 그렇지 않은 미래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었고 국제사회가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같이 저지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종속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회가 앞으로 진보하는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부족하나마 더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제 소감입니다.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전 세계의 담론을 보면 마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의 좌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인상이 있어요. 마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과 사회운동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런 인식에 대한 블라디슬라프 씨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런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무시하고 침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그것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지, 침략 공격에 대한 방어를 누구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아닌데요. 그래서 ‘대리전’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의 좌파, 사회운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인식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블라디슬라프 씨의 생각이 듣고 싶었습니다.

**강연자** | 질문은 왜 우크라이나의 좌파와 사회적 차원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냐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도 비자이 프라샤드와 그의 트라이컨티넨탈 연구소 동료들 같은 대단하신 분들이 참석한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러시아는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고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른 이들을 아래로 내

려다보며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현실을 그들의 교조적 해석에 끼워 맞추려 합니다. 이미 그들 머릿속에 세워놓은 틀에 맞춰서요.

예를 들어, 그들은 ‘다극성’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여깁니다. 소위 ‘미국의 영향력’이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도전 받으면, 자동적으로 뭔가 진보가 이뤄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정학 중심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관점이지요.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조적 믿음에 굉장히 오도되어 있는데요,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담론은 오직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미국 외의 다른 어떤 국가도 주체가 아니며 다른 어떤 제국도 주체가 아니고 다른 어떤 민중도 주체가 아닙니다.

이런 이들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러시아, 중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거나 돈을 받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라이컨티넨털 연구소의 비자이 프라샤드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인터내셔널의 일부 성원도 러시아, 중국과 직접 일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교조주의에 오도된 이들은 국제주의를 지정학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들은 민중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을 퍼뜨리라고 돈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진정한 좌파라면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좌파는 인도주의, 민중 중심적 접근, 반제국주의, 민족자결권, 민족적 권리와 같은 것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들과 같은 좌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임필수** | 서단비 회원이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한 것처럼 저도 그 뜻을 다시 전달하고 싶어요. 질문은, 첫 번째로 아까 전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들을 공들여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여러 신자유주의적 사회 경제 정책이나 규율을 빠르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 듯 한데요,

질문은, 이것이 향후에 유럽 연합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조건 마련으로 전반적인 이런 경제 사회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신 분이나 그 단체에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는 하되, 앞으로 그 과정에서 유럽 연합의 여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나 규율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다른 여러 유럽 좌파들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를 연속으로 같이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로는, 이왕에 모셨으니까 향후 전쟁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오늘 그 얘기까지는 별로 많이 안 하셨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민중과 사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여전히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런 기운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 어떠한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연자**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유럽연합에 대한 질문은 매우 흥미롭네요. 왜냐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반사회적 개혁은, 유럽연합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들은 너무 반사회적이라, 유럽연합은 좀 더 사회지향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도입한 정책들은 우리가 서명한 모든 국제노동기구(ILO) 문서에 위배됩니다. 그 내용들은 유럽연합법의 일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유럽이 우리에게 더 사회적인 개혁을 강요하지만, 법 제정에 있어서 외국의 어떠한 개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더 사회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사회적 개혁을 하세요! 그런 노골적인 신자유주의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나왔고, 여러분의 경제는 좀 더 성숙한 개혁을 필요로 해요!” 이것은 유럽연합의 실제 정책 권고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지금보다 노동 보호를 늘리는 것과 지금보다 사회적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려 합니다. 전쟁을 핑계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유럽연합에 대해 매우 불안정한 입장을 취합니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법을 존중하지 않고 유럽연합보다 훨씬 덜 사회적인 정책을 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엄밀한 합의는 없어요. 하지만 회원 대부분은 우리가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유럽연합 가입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 보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법이 우크라이나 법보다 훨씬 진보적이니까요. 우크라이나 법은 그저 신자유주의의 ‘거친 서부’ 버전이지요. 반면 유럽은 신자유주의에서 약간 거리가 있고 좀 더 사회적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가입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강력한 노동 보장을 제공하고, 적어도 몇몇 사회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의 '라젠프' 및 유럽 의회 내 반우크라이나적이지 않은 좌파 세력들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적 유럽을 요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와 영토 측면에서요. 우리는 유럽 지역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럽 의회 내에 자리를 얻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럽연합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유럽, 아니면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유럽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 개혁, 사회 보장, 노동 보장을 요구하고, 이러한 캠페

인을 플랫폼으로 삼아 사회적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회원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입니다.

전선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예상이나 면밀한 분석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도 이따금 다른 단체들의 현황 분석을 읽고, 관련된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분석들에 따르면, 겨울은 양측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이 제한되고, 러시아가 방어를 정비할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게 겨울은 동사, 아사, 사기 저하, 탈영으로 인한 피해를 뜻할 것입니다. 겨울은 그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러시아의 장비와 무기는 겨울을 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은 러시아에 방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러시아는 더욱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은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새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방이 보내 준 모든 무기들은 러시아 영토에 쓰여선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제 무기로만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강대국 간 타협의 정치학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새 드론을 개발했고, 이제 이것으로 전선에서 한참 떨어진, 러시아 영토 내의 러시아 군사 기지, 보급 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파르티잔 활동, 이 새로운 드론, 최근 헤르손의 탈환을 통해, 현재 매우 취약한 러시아의 보급로를 무너뜨릴 많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크림반도나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들에서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반격이 쉽지 않고, 양측 모두 일종의 작전타임을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큰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뜻이 아니라, 지도 위 전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잔혹한 전투가 바흐무트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곳에 있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은 이미 자기 편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나오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그 말대로 가능한 만큼 밀어붙일 것이며 바흐무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기 분쇄기' 전술을 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도 다른 지역에서 진격하는 대신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바흐무트로 보내면서 마치 1차 세계대전 중 베르딩 전투와 같은 거대한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흐무트 방어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을 낮춥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역공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큰 진전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미래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 겨울은 큰 전략적 작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3월 이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정서는, 사회학적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 즉 90%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평화협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매우 높지만, 많은 사람, 특히 군인들은 이미 지쳐있지요. 사기의 문

제가 아니라, 물리적 조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을 다시 보고 싶어 하고, 자유시간도 갖고 싶어 합니다. 군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혼란과 피로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포격 아래서 싸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듯 피로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싸우려는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을 보고 싶어 하고, 쉬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러시아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쩌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없을 것임을 압니다. 특히 돈바스 출신 사람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출신 사람들에게는 싸우는 것 이외의 답은 결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는 여전히 잘 조직되어 있고, 인도적 지원에 매우 협조적이며, 군대를 지원하는 것은 틀림없이 시민사회의 가장 큰 활동 중 하나이며, 이러한 활동을 여전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기를 잃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가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할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피로감은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전쟁에서든 다 그렇겠죠.

**사회자** | 연사님의 마지막 발언을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 | 감사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현재 상황, 사회 개혁, 우크라이나가 처한 조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제국주의와 모든 침략에 맞서 싸우고, 외세나 자국 정부의 억압 아래 놓인 이들, 민주주의, 자유, 민족자결권과 같은 인간적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저에게 연대란 좌파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좌파 세력과 모든 노동조합이 지지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란 민중과, 독재에 맞서 싸우는 중국 민중과, 집단학살에 직면한 모든 집단과, 시리아 민중과, 이스라엘로부터 인종청소를 당하는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는 좌파의 도덕적 지침, 원칙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고수하며 여기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류와 연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자** |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블라디슬라프 씨와, 통역을 맡아주신 조은석, 류미경 동지에게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동운동포럼 2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